

社說

경기북부 환편조합 창립

얼마 전 한미 FTA가 체결되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놓고 각 분야에 따라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섬유분야는 80년대와 90년대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을 이룩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고, 한미FTA체결에 따라 국제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9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는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국제경쟁력이 크게 떨어져 어려움을 겪어온 게 사실이다.

게다가 후속적으로 창립된 섬유공장들이 기술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다른 업체에서 스카웃 경쟁을 벌이면서 기술자 인건비는 천정부지로 상승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규모가 작은 섬유업체들은 해외에 직접 수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무역상을 통한 수출이 대부분이다. 일부 무역상들이 가는 하지만 무역상들이 해외에서 주문을 받아 상품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제조업체간에 가격경쟁을 유도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했던 측면도 있었다.

최근 중국을 비롯한 인도, 태국, 베트남 등은 풍부한 원자재와 저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국제 섬유시장에서 급성장하고 있다. 또한 국내 영세 섬유업체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없으면 공장 가동이 어려운 실정이다. 문제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국내 섬유업체에서 얼마간 근무한 후 자기 나라로 돌아가 섬유제조업체를 창업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결국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최근 국제시장에 크게 진출해 국내 업체들의 제품과 가격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국제 섬유시장을 차츰 잠식해 가고 있다.

국내 섬유업체가 제2의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유통 질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저가격 출혈경쟁은 없어야 하고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상품의 디자인 개발과 품질향상을 통한 고급화로 고부가치 산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지난 5월11일 123개 업체가 모여 경기북부환편조합이 창립 총회를 갖고 출범했다. 동종 업체 관계자들이 모인 만큼 환편조합이 보다 더 순조롭고 발전된 운영을 위해서는 많은 지혜와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아울러 국내 섬유업체는 미래를 대비하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와 도전, 그리고 시련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 또 섬유산업은 일자리 창출은 물론 수출증대를 통한 국가 경제 활성화에도 노력해야 한다. 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학·관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고부가가치 신상품을 개발해야 한다.

경기북부환편조합은 이제 출발하는 단계다. 환편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가 동반자라고 인식하고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조합원 상호간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협동사업을 실시해 조합원의 지위를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환편조합 창립을 계기로 선진 마케팅 기법을 비롯한 유통, 상품의 고급화 등을 모색해 국제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운영위원으로 금지와 자부심 갖자”

제65차 포천신문 운영위원회 개최

포천신문 운영위원회(위원장 윤이음) 제65차 정기회의가 5월18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는 운영위원회 해외연수 결산의 건과 운영위원회 활성화 방안의 건, 기타사항 등에 관해 논의했다. 윤이음 위원장은 “매월 정기모임을 실시하는데 다함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자”고 강조하고 “베트남 현지공장을 설립한 배성호 고문님이나 제2공장을 준공한(주)꽃샘종합식품 이상갑 고문님 등 운영위원들은 열정을 가진 포천의 대표인 중소기업인이다”고 말했다.

베트남 현지에 공장을 설립한 배성호 고문은 “그동안 해외 공장 건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해외 연수차 베트남 현지를 방문해 준 운영위원들에게 감사드리고 운영위원회가 다같이 단합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효열 본지 발행인은 “포천신문과 운영위원회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해 주신 백봉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지난날 29일 별세했다”며 “그 분의 명복을 우리 모두 빌자”고 말했다. 또 최 발행인은 “해외연수 때 주영산업 배성호 고문께서 배풀어 주신 호의에 감사드리고, 국내 최첨단 시설을 갖춘 꽃샘종합식품 제2공장 준공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면서 “운영위원회 회원들이 훌륭한 일, 좋은 단합된 계기가 되었기에 금지와 자부심을 고 말했다.



최효열 본지 발행인은 “포천신문과 운영위원회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해 주신 백봉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지난날 29일 별세했다”며 “그 분의 명복을 우리 모두 빌자”고 말했다. 또 최 발행인은 “해외연수 때 주영산업 배성호 고문께서 배풀어 주신 호의에 감사드리고, 국내 최첨단 시설을 갖춘 꽃샘종합식품 제2공장 준공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면서 “운영위원회 회원들이 훌륭한 일, 좋은 단합된 계기가 되었기에 금지와 자부심을 고 말했다.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백로주 유원지 춘계수련대회 갖기로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 제17차 정기회의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은 지난 10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제17차 정기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주부명예기자단 춘계수련대회 개최의 건이 상정되어 오는 6월14일 백로주 유원지에서 수련대회를 갖기로 의결했다.

이밖에도 기사작성 및 제보의 건, 정기독자확보 협조의 건, 기타 안건토의로 진행됐다.

본지 최후열 전두이사은 인사말을 통해 “꽃이 만발하는 신록의 계절을 맞아 임경순 단장님을 비롯한 주부명예기자단 여러분의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한다”면서 “항상 열정을 가지고 포천신문을 위해 활동해 준 점에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임경순 단장은 “포천신문이 시민과 지역발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에 감사 드린다”면서 “주부명예기자단은 이달과 다음달에도 많은 기사를 발굴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포천시 발전의 견인차 역할

포천신문 조사위원회 정기회의서 다짐

포천신문 조사위원회(위원장 조정선)는 5월10일 오후 7시 본지 대회의실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조사위원회 활동을 보다 강화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이상일 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안건토의에서 조사위원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여 포천시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문제점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과 조사를 실시한 후 포천신문에 보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는 데 뜻을 함께 했다.

특히 포천시가 추진하는 크고 작은 사업이 예산낭비가 되는 것과 비효율적인 것 등 문제점이 많은 사업에 대해 제보하여 보도함으로써 포천시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본지 최효열 발행인은 “조사위원회의 조직강화 및 친목도모를 통해 상호간의 도움

이 되는 기구로 성장, 발전해 줄 것”과 “포천신문이 조사위원들의 홍보활동에 힘입어 보다 많은 사람이 구독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軍부대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15항공단, 포천남사랑선교원, 분도마을에서



제3야전군 예하 15항공단은 최근 포천 남사랑 선교원과 분도마을, 가평 꽃동네를 방문해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군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봉사활동에 나선 장병들은 독거노인과 지체장애우들의 손과 발이 되어 혼자 하기 어려운 목욕, 청소일을 돕고, 우뻛처럼 다양한 말벗이 되었다.

김정일(43) 주임원사는 이등병 전임시 인성교육 차원에서 전 인원이 봉사활동을 1회 이상씩 할 수 있도록 하는 체험식 총·효·예 교육을 실시하고 집중정신교육기간에도 함께 하는 시간을 보내는 등 지속적인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자신을 낳아주신 부모님의 소중함과 고마움은 물론 일생을 장애의 고통속에서 살아야 하는 어려운 환경임에도 밝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 많은 것을 느끼고 경험했다고 한다.

이정현 일병은 “이번 봉사활동은 계기로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과 배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으며 앞으로 부모님에 효도하고 남은 군복무중에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생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내의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봉사활동을 실시하여 장병들의 인성교육과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군인상을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포천시 개인택시 신규면허증 교부

택시총량제 시행 5개년 제2차년도 택시증차분



포천시(시장 박윤국)에서는 최근 대규모 택시개발 등 도시개발 가속화에 따른 교통수요증가에 대비하여 2006년도부터 택시총량제 시행 5개년계획 제2차년도 개인택시 증차분 12대에 대한 개인택시 신규면허증을 교부했다.

이날 교부식에서 박윤국 시장은 앞으로 쾌적한 교통환경 개선과 친절한 봉사자세 확립 등 교통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과거와는 차별화된 새로운 교통운송문화를 정착시켜 줄 것을 당부했다.

또 경기북부지역의 관광, 문화,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발전하고 있는 시의 새로운 이미지에 걸맞은 택시 브랜드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을 밝히고 이날 참석한 택시운송사업자 임직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Subscription information for Pocheon Newspaper, including contact details and pricing.

Large advertisement for Pocheon Newspaper, highlighting its status as the highest regional newspaper in the country. Includes a list of issue numbers and dates from 2000 to 2006.